

## 館山市 大巖院 石塔의 한글 書體에 對하여

張 榮 吉 (東國大學校 人文科學大學 敎授)

日本國 치바현(千葉縣) 다테야마시(館山市)의 마이간인(大巖院)에 있는 한글 石塔(以下 '이 石塔'으로 부른다)의 建立 經緯나 背景 등에 대해서는 이미 몇몇 關心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研究한 바 있다<sup>1)</sup>. 그러므로 本 發表에서는 한글로 쓰여진 部分의 書體에 대해서만 集中的으로 考察해 보고자 한다. 本 發表의 論議 過程에서 必要한 寫眞資料는 이 글의 末尾에 一括적으로 添附하여 參照하기로 한다.

이 石塔의 東面에 새겨진 한글 表記는 이른바 東國正韻式 漢字音 表記이다. 東國正韻式 漢字音 表記法은 朝鮮 4代 王인 世宗의 語文政策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世宗은 한글을 만들어 그것으로 純粹 韓國語를 正確하게 表記하였을 뿐 아니라 漢字音도 正確하게 表記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 當時 이미 朝鮮에는 中國과는 다른 朝鮮式 漢字音(이를 흔히 '東音'이라고도 한다)이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世宗은 이 朝鮮式 漢字音을 中國의 原音에 가깝게 고쳐서 表記하고 이 改新된 漢字音을 國民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였다. 이러한 努力의 結果로 編纂된 것이 『東國正韻』(1447年)<sup>2)</sup>이다. 그러므로 東國正韻式 漢字音 表記는 當時 朝鮮의 現實 漢字音이 아니라, 中國 原音에 가깝게 再構한 再構音이며 理想音이다. 東國正韻式 漢字音 表記에는 當時 純粹 韓國語 表記에서 禁忌視했던 各字並書(ㄸ, ㄺ, ㅄ, ㅆ, ㅊ, ㅌ)가 使用되었고 純粹 韓國語 表記에 널리 使用되었던 合用並書(ㅅㅡ, ㅈㅡ, ㅊㅡ 등)는 전혀 使用되지 않았다. 그리고 終聲(받침)이 없는 漢字音에는 'ㅇ' 이나 'ㅇ' 등의 글자를 붙여 놓았다. 이 石塔의 '남몽랑잉망뽕' 글자 中에 當時 朝鮮의 現實 漢字音 表記로는 '몽'(無)와 '랑'(阿)와 '잉'(彌)의 終聲 表記(ㅇ)는 必要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東國正韻式 漢字音 表記는 『訓蒙字會』(1527年)<sup>3)</sup>에 오면 現實 漢字

1) 다음 論文을 參照할 수 있음.

石和田 秀幸(2001), 「日韓(朝)友好の先驅者雄譽上人」, 『千葉のなかの朝鮮』, 千葉縣日本韓國・朝鮮關係史研究會.

愛澤 伸雄(1995), 「大巖院 「四圍石塔」 に刻まれたハンダルの話」, 『房總史學』 35호, 千葉縣高等學校敎育研究會 歷史部會.

2) 『東國正韻』은 世宗 當時에 朝鮮에서 現實적으로 發音되고 있는 漢字音을 中國 原音에 가깝게 矯正하고자 編纂된 것으로 世宗 29年(1447年)에 完成된 韻書이다. 全 6卷 6冊으로 構成되어 있다. 여기에는 91韻母와 23聲母가 나타나는데 이 中에서 23聲母는 그대로 訓民正音 17初聲(子音)과 關聯이 있다. 그러므로 『東國正韻』은 訓民正音(한글)을 創製하는 過程에서 重要한 意味를 가진다.

3) 『訓蒙字會』는 朝鮮 11代 王인 中宗 22年(1527年)에 당시 中國語 通譯官으로서 立身한 崔世珍이 만든 漢字玉篇에 該當하는 冊으로 3卷 1冊으로 되어 있다. 약 3300個의 漢字에 한글로 發音과 뜻을 달아 놓았다. 漢文 初學者가 利用한 冊인 바, 그 需要가 많아서 後代에 여러 번 重刊本이 刊行되었다. 現在 原刊本으로 推定되는 版本으로는 <叡山文庫本>이 있고, 壬辰倭亂

음으로 바뀐다. [寫眞資料1]을 参照하여 『訓蒙字會』의 漢字音 表記를 잘 보면, 純粹 韓國語 表記처럼 終聲이 없는 漢字音에는 아무런 表記도 하지 않고 事實대로 終聲 자리를 비워 놓았다. [字]의 境遇 東國正韻式 表記로는 [중]로 表記되었는데 이 冊에는 現實 漢字音 그대로 [즈]로 表記되어 있다. 한글은 朝鮮 10代 王인 燕山 君 時節에 잠깐 그 使用이 廢止되었다가, 다음 王인 11代 中宗 때 이르러 漢字 敎育을 위한 方便으로 通譯官 崔世珍에 의해 다시 使用하게 되었는데 그 代表的인 書籍이 바로 『訓蒙字會』이다. 물론 壬辰倭亂(1592年) 以前까지는 東國正韻式 漢字音 表記가 完全히 消滅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訓蒙字會』에 이미 現實 漢字音이 表記되었다<sup>4)</sup>는 것은 많은 點을 示唆한다. 卽 이 時期에 이미 東國正韻式 表記나 發音을 위한 世宗의 語文政策이 失敗로 돌아갔다는 것을 意味한다.

一般的으로 壬辰倭亂(1592年) 以後에 初版이 刊行된 모든 文獻에는 現實 漢字音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訓蒙字會』에 나타난 當時의 現實漢字音대로 表記했다면, 이 碑文은 '남우아미타불'로 表記되었어야 맞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1624년에 만들어진 이 石塔에 朝鮮에서도 이미 現實的으로 쓰이지 않은 東國正韻式 漢字音 表記가 나타난 까닭은 무엇일까? 이 質問에 대한 對答은 좀 抽象的이기는 하지만 이 石塔의 한글 碑文을 쓴 사람의 한글에 대한 認識과 關聯이 있을 것 같다. 卽 이 사람이 朝鮮의 어떤 冊들을 求해서 보았는가가 重要한 關鍵이 될 것이다.

서둘러 말한다면, 적어도 이 石塔의 한글 碑文을 쓴 사람이 『訓蒙字會』를 아직 接해 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設令 『訓蒙字會』를 接해 보았다고 假定해도 問題는 있다. 왜냐하면 『訓蒙字會』의 用例에는 [南](남)字와 [佛](불)字의 用例는 나오나 나머지 4字의 用例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特히 이 碑文에서 [땅]로 표기된 [陀](타)字의 用例가 없어 이 漢字의 朝鮮式 現實音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石塔 東面에 새겨진 한글은 朝鮮時代 韓半島에서 出版된 어느 한글冊의 書體를 모델로 하였을까? 우리는 몇 가지 側面에서 이 물음에 대한 答辯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가 『東國正韻』(1447年)에서 集字했을 可能性이다. 그러나 [寫眞資料2]에 나타난 『東國正韻』의 한글 書體를 잘 살펴보면, [ㄱ, ㅋ, ㆁ, ㆁ]나 [ㄴ, ㄷ, ㅌ, ㄷ] 등의 母音字 書體가 이 石塔의 書體와는 다르다. 이 石塔의 母音字 書體는 모두 線으로 構成되어 있지만, 『東國正韻』에는 [ㅡ, ㅣ]의 위나 아래 혹은 안이나 밖에 더한 線이 모두 圓點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ㄱ]가 [·]의 形態를 띠고 있다<sup>5)</sup>. 이 石塔에 [佛]의 음이 [佛]로 表記되어 있는데, [寫眞資料2]의 [佛]의 表記는 分明히 이와는 다르다. 卽 [ㅌ]의 내리긋기 線이 圓點으로 表記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石塔의 한글 表記가 東國正韻式이라 하더라도 이 碑文을 쓴 사람이

以前에 刊行된 것으로 <東京大學中央圖書館本>과 <尊經閣本>이 있다.

4) 『訓蒙字會』에 [佛]의 음이 現實音인 [불]로 表記되어 있음을 確認할 수 있다.

5) 『東國正韻』의 母音字體가 한글 創製 당시의 모습이므로 이 石塔의 母音字體보다 더 古形이다.

『東國正韻』의 書體를 모델로 하였을 可能性은 매우 稀薄하다.

둘째로는 世宗 當代에 刊行된 初期 한글 書籍들의 書體를 모델로 하였을 可能性이다. 特히 이 時期의 佛敎 文獻으로 舉論할 수 있는 冊으로는 『釋譜詳節』(1447年), 『月印千江之曲』(1447年)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中 『釋譜詳節』의 書體와 表記法은 이 石塔의 한글 書體 및 表記法과 多少 닮았다. [寫眞資料3]을 参照하여 檢討해 보면, 『釋譜詳節』의 글자體가 高直形으로 모서리가 날카로운 點과 表記法이 이 石塔의 境遇와 비슷하다. 그런데 [寫眞資料8]에 나타난 이 石塔의 한글과 比較해 보면, 子音字와 母音字의 調和가 이 石塔의 境遇보다 『釋譜詳節』의 境遇가 훨씬 더 四角形으로 반듯하며 安定的이다. 한편, [寫眞資料4]에서 보듯이, 『月印千江之曲』의 境遇, 書體는 이 石塔의 書體와 비슷하지만 表記法이 많이 다르다. 『月印千江之曲』의 漢字音 表記의 特徵은 終聲(받침)이 없는 漢字音에는 終聲 자리에 아무런 表記도 하지 않았다는 點이다. 終聲이 없는 境遇에 東國正韻式 表記로는 위에서 말한 대로 [ㅇ]이나 [ㅇ] 등을 붙여야 한다. 예를 들면 [寫眞資料4]에서는 [脉]의 音을 [미]로 表記해 놓았지만 東國正韻式으로 表記한다면 [밍]로 表記해야 맞다.

한편 朝鮮 7代 王인 世祖 때에 刊行된 『月印釋譜』(1459年)<sup>7)</sup>의 書體를 보면 이 石塔의 書體와는 많이 다르다 이 石塔의 書體는 모서리가 매우 날카로운데 비해 [寫眞資料5]의 『月印釋譜』 書體는 모서리가 매우 둥글둥글하고 부드럽다. 『月印釋譜』는 한글 書體의 變遷史에서도 매우 重要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月印釋譜』以前의 한글 書體가 高直形으로 매우 硬直되고 모서리가 날카로운데 이러한 한글 書體가 차츰 柔軟하고 모서리가 둥글둥글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예를 이 冊이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살펴 볼 書籍은 世祖 때 刊經都監<sup>8)</sup>에서 刊行한 各種 佛經諺解書<sup>9)</sup>로 『楞嚴經諺解』(1462年), 『圓覺經諺解』(1464年), 『金剛經諺解』(1464年), 『法

- 6) 『釋譜詳節』은 世宗이 婦人인 昭憲王后가 죽자 그의 冥福을 받기 위한 佛事로 釋迦의 一代記를 首陽大君(後代의 世祖)에게 編纂하게 하였는데, <釋迦譜>, <法華經>, <地藏經>, <阿彌陀經>, <藥師經> 등에서 뽑아 韓國語로 翻譯한 책이다. 全 25卷으로 世宗 29年(1447年)에 完成되어 世宗 31年(1449年)에 刊行되었다. 『月印千江之曲』은 世宗이 『釋譜詳節』의 內容을 詩로 옮겨 놓은 것으로 完成 및 刊行 年度는 『釋譜詳節』과 同一하다. 全 3卷이었던 것으로 推定되나 現在 上卷만 전한다.
- 7) 月印釋譜는 朝鮮 7代 王인 世祖 5年에 刊行된 冊이다. 世祖가 大君時節에 지은 釋譜詳節과 世宗이 지은 月印千江之曲을 改稿하여 合編한 冊이다. 현재 完帙이 傳해지지 않아 總卷數를 알 수 없지만 대개 三十餘卷으로 構成되었을 것으로 推定한다. 現傳하는 卷은 初刊本과 重刊本을 合해 1,2,7,8,9,10,13,14,17,18,21,23 등 모두 12卷이다.
- 8) 刊經都監은 世祖 3年(1457年)에 設置되어 成宗 2年(1471年)에 閉鎖된 國立出版機關의 一種이다. 世祖는 公的으로는 指導理念化한 儒敎政策을 補給 獎勵하는 한편, 個人的으로는 世宗과 같이 佛敎을 篤實히 믿어 佛敎振興을 위해 多角的으로 努力하였다. 그 結果 刊經都監에서 많은 佛經들이 韓國語로 翻譯되었다. 信眉, 守眉 등의 高僧들과 韓繼禧, 尹師路, 黃守身, 盧思愼, 姜希孟, 姜希顔 등의 學者들이 많은 業績을 남겼다.
- 9) 佛經諺解書는 漢文으로 刊行된 各種 佛經을 當時의 韓國語로 翻譯하여 한글로 刊行한 冊을 말한다.

華經諺解』(1463年), 『般若心經諺解』(1464年), 『阿彌陀經諺解』(1461年) 등을 들 수 있는데, 發表者가 보기에는 이 중에서도 이 石塔 書體의 모델로 가장 有力한 것은 『阿彌陀經諺解』이다. 『阿彌陀經諺解』는 위의 佛經諺解書들과 비슷한 時期(15世紀 後半)에 刊行된 冊이지만 이 冊이 淨土宗의 重要한 所依經典<sup>10)</sup>이라는 點에서 特히 우리들의 關心을 끈다.

現在 傳해지고 있는 『阿彌陀經諺解』로는 <活字本>(1461年)이 있고 復刻本인 <雙溪寺本>(1558年)과 重刊本인 <桐華寺本>(1753年), <水巖寺版本>(1636年)과 復刻本인 <雲興寺版本>(1702年)과 比較的 後代에 刊行된 德寺版本(1871年) 등이 있는데, 이 佛經은 初版 發行 以後 여러 次例나 重刊 또는 復刻되었다. 그만큼 이 經典은 『般若心經』 다음으로 佛教信者들에게 널리 讀誦되었던 것이다. 이 중에서 이 한글 石塔이 만들어진 1624年 以前에 刊行된 版本은 <活字本>(寫眞資料6)과 <雙溪寺本>(寫眞資料7)이다. 이 두 版本 中에서도 <雙溪寺本>의 書體가 이 石塔의 書體와 매우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活字本>의 書體는 字劃의 모서리가 부드러운 反面 <雙溪寺本>은 木版本인데도 字劃의 모서리가 比較的 날카로우며 子音字와 母音字의 調和가 이 石塔의 한글 書體와 매우 恰似하다.

한편 刊行 年代上으로 볼 때, <雙溪寺本>(1558年)은 『釋譜詳節』이나 『月印千江之曲』 그리고 기타 위에 列舉한 初刊本 佛經諺解書들이 出刊된 지 거의 100年이 지난 時點에 刊行되었다는 點이 또한 說得力이 있다. 다른 初期의 諺解書들이 100年이라는 歲月 동안 亡失되었기 때문에 다시 復刻本으로 刊行된 이 雙溪寺本 『阿彌陀經諺解』가 壬辰倭亂 前까지 朝鮮에서 傳해지다가 日本으로 流傳되고, 이렇게 流傳된 雙溪寺本 『阿彌陀經諺解』가 바로 이 石塔 한글 書體의 모델이 되었을 可能性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단지 여기서 [ナ]의 경우, 가로긋기線이 [ ]의 中央에 [ナ]形式으로 正確하게 表記되지 않고 위쪽으로 치우쳐서 있는 것이 疑問이다. 이러한 書體는 中世 한글 文獻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以上の 論議를 要約하여 結論을 내리면, 이 石塔의 한글 表記는 東國正韻式 漢字音 表記法을 따른 것이며 朝鮮에서 전해진 雙溪寺本 『阿彌陀經諺解』의 書體를 본 받은 것으로 思料된다.

結局 [남용랑잉망뽕]을 現代 韓國語로 表記하면 [나무아미타불]이 된다. 이 말의 意味를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나무'란 산스크리트어(梵語)로 '돌아가서 依支한다'는 뜻이다. '아미타'는 '西方淨土를 主宰하시는 부처님의 이름'으로 淨土宗의 立場에서 보면 다른 부처님보다 더 重要한 意味를 지니는 부처님이다. 現實的인 삶의 苦海에서 벗어나 極樂世界로 가고자 하는 衆生들이 밤낮으로 念誦하는 부처님이다. 한편, '불'은 '부처님'이란 뜻이다. 이렇게 보면, [나무아미타불]의 全體的인 意味는 '아미타 부처님께 歸依한다'는 意味이다. 이 말은 곧 부처님께 대한 一種의 信仰告白이며 救援을 비는 祈禱인 것이다.

10) 淨土宗의 所依經典으로는 『阿彌陀經』, 『無量壽經』, 『觀無量壽經』이 있어 淨土三部經이라 한다.

朝鮮에서 멀리 떨어진 異域의 땅에 이와 같은 한글 碑文이 새겨진 것은 壬辰倭亂 때 犧牲된 朝鮮의 冤魂들과 捕虜로 잡혀온 朝鮮人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雄譽上人의 거룩한 佛心의 結果일 것이다. 그리고 이 碑文을 통해 우리는 壬辰倭亂 以後 韓日 兩國의 政治指導者들을 代身하여 宗教指導者들이 앞서서 兩國 間의 和解와 交流를 積極적으로 圖謀했음을 알 수 있다. 雄譽上人의 이러한 行蹟은 壬辰倭亂, 當時 朝鮮의 僧侶 維政(泗溪堂)이 無謀한 殺生에 시달린 衆生들의 고단한 삶을 救援하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倭將 加藤清正의 陣中을 세 번이나 訪問하여 和議를 請했으며, 戰爭이 끝난 後, 1604년에는 朝鮮國王의 國書를 携帶하고 直接 渡日하여 徳川家康을 만나 講和를 맺고 朝鮮人 捕虜 3,500名을 救出하여 韓國한 活躍相과도 一脈 相通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參考論著]

- 姜信迭(1991), 『增補版 訓民正音研究』, 成均館大學校出版部, 서울.
- 李觀洙(1997), 『改訂版 訓民正音 新研究』, 도서출판보고사, 서울.
- 金吉祥(1998), 『佛敎大辭典』 上,下, 弘法院, 서울.]
- 張榮吉外(1993), 『金剛經諺解註解』, 東岳語文學會, 東國大學校, 서울.
- \_\_\_\_\_ (1995), 『般若心經諺解의 國語學的 研究』, 도서출판대흥기획, 서울.
- \_\_\_\_\_ (1997), 『阿彌陀經諺解의 國語學的 研究』, 法寶新聞社, 서울.
- 石和田 秀幸(2001), 「日韓(朝)友好の先驅者雄譽上人」, 『千葉のなかの朝鮮』, 千葉縣日本 韓國・朝鮮關係史研究會.
- 愛澤 伸雄(1995), 「大巖院 四面石塔に刻まれたハンプルの謎」, 『房總史學』 35 號, 千葉縣高等學校敎育研究會歷史部會.
- Garl K. Ledyard(1998), *The Korean Language Reform of 1446*, 신구문화사, 서울.

### [影印本]

- 檀國大學校出版部(1971/1983), 『訓蒙字會』 <觀山本>,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서울.
- 弘文閣(1995), 『圓覺經諺解』, 弘文閣, 서울.
- \_\_\_\_\_ (1992), 『金剛經諺解』, 弘文閣, 서울.
- \_\_\_\_\_ (1984), 『月印釋譜』 (7,8卷合本), 弘文閣, 서울.
- 大提閣(1985), 『東國正韻』, 大提閣, 서울.
- \_\_\_\_\_ (1985), 『釋譜詳節』 (6,9,13,19,23,24卷合本), 大提閣, 서울.
- \_\_\_\_\_ (1985), 『楞嚴經諺解』, 大提閣, 서울.

\_\_\_\_\_ (1985), 『圓覺經諺解』, 大提閣,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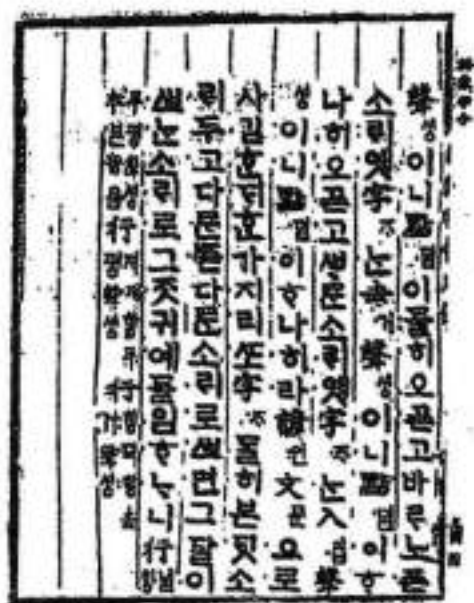
\_\_\_\_\_ (1985), 『法華經諺解』, 大提閣, 서울.

國語學會(1962), 『月印千江之曲』(上), 通文館, 서울.

張榮吉外(1995), <般若心經諺解>, 『般若心經諺解의 國語學的 研究』, 도서출판대흥기획, 서울.

\_\_\_\_\_ (1997), <阿彌陀經諺解:活字本,雙溪寺本>, 『阿彌陀經諺解의 國語學的 研究』, 法寶新聞社, 서울.

[寫眞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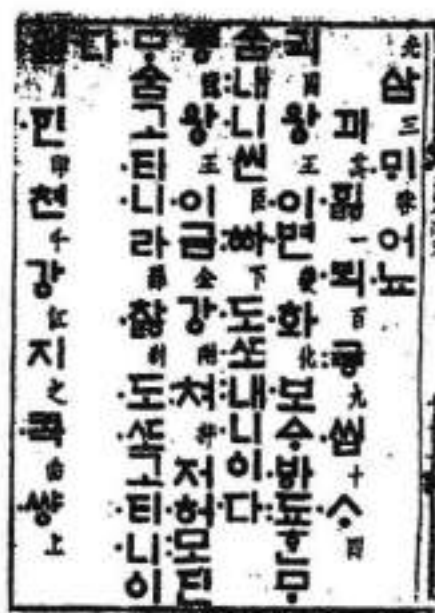
[寫眞資料1] 訓藏字會



[寫眞資料2] 東國正韻



[寫眞資料3] 釋譜詳節



[寫眞資料4] 月印千江之曲

月印千江之曲第七  
 釋譜詳節第七  
 其一百七十七  
 七年...  
 七...  
 七...  
 七...

[寫眞資料5] 月印釋譜

活字本阿彌陀經諺解  
 佛...  
 阿彌陀...  
 經...  
 諺...

[寫眞資料6] 活字本阿彌陀經諺解

雙溪寺本阿彌陀經諺解  
 彌陀佛...  
 阿彌陀...  
 經...  
 諺...

[寫眞資料7] 雙溪寺本阿彌陀經諺解



[寫眞資料8] 大巖院石塔碑文



나무아미타불

北面	西面	南面	東面
<p>卍 卍 卍 卍 卍 卍</p>	<p>卍 卍 卍 卍 卍 卍</p>	<p>卍 卍 卍 卍 卍 卍</p>	<p>卍 卍 卍 卍 卍 卍</p>
<p>于時元和十年三月十四日房州山下天綱村大藏院檀道社雄譽 寄蓮水向施主山村彦兵衛建譽起西信也榮壽信女爲逆修 乃乃乃乃乃乃</p>	<p>南無阿彌陀佛</p>	<p>南無阿彌陀佛 門門不同八万四爲滅無明果業因 利劍即是彌陀号一聲耳攝念罪皆除</p>	<p>나무아미타불</p>

<大藏院石塔碑文>